

buddhanews.com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니 그대로 여여하구나!

25면에서 계속

이 몸 하나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하나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 몸 하나가 수천 수만으로 늘어나서, 즉 입자로 화해 가지고 탄 모습으로 자꾸 행동을 하게 되죠. 지장도 되고 뭐, 관세음도 되고 여러 가지로 다 나타나니까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대로죠. 그래서 '만불(萬佛)이다 하더라도 일불(一佛)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진리가 두 개, 세 개가 되는 게 아니니까요. 어디서든 똑같이 그 공부를 했다든 똑같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무엇을 따지고 그러는데, 이게 따지면 벌써 벌써 그게 돌아가는 거죠. '돈오(頓悟)다. 돈오가 옳다. 금방 그냥 깨치는 거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애를 낳아 놓으면 금방 어른이 돼서 사회에 나가니까? 그건 언어도 단이죠. 그래서 점수(漸修)를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 점수와 돈오가 어떻게 들어나는 얘기도. 그럼 여러분이 지금 그 정신계, 영원한 자기의 정신이 없다면 자기 송장이 될 텐데 어떻게 그게 돌입니까? 그와 같은 거죠. 병원에 가서 마취하면 정신이 없어서, 다리를 잘라 내든, 구워 먹든 삶아 먹든 아무것도 모르시죠? 그런데 어떻게 자기 몸뚱이만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몸뚱이 속에 생명들이 무수하게 들어 있는데 그거는 자기 과거를 알고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하면 속에 천차만별로 모습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미생물에서부터 인간이 되어 온 그 자체의 모습들이 다 있어요. 누구냐 똑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미생물에서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들을 귀하게 생각하라. 너의 생명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지금 미생물의 모습도 네가 예전에 그렇게 해 왔던 것이니라. 그렇게 거쳐 왔느니라. 그러니 업신여기지 말고 전자의 모자랐을 때 나로 보라. 내 생명같이 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분향만 잘 알면 오계를 받은 뜻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분향을 알면 오계는 다 그냥 저절로 되는 거니까. 나는 오계를 여러분한테 전할 때 좀 떨리 했죠. 원래는 술 먹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통하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난 하나같이 그랬거든요. 네 생명같이 생각하라. 또 거짓말을 하더라도 남을 이익하게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술을 먹어도 식구들 괴롭게 하지 말고 내가 괴롭지 않게, 망주로 하지 말고 약주로 해라 하고요.

그리고 남을 안팎으로 어떻게 만들고, 죽을 때까지 이미지를 흐리게 해 놓고 가면 자식들까지도 안팎으로 닮았든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화복해라. 서로 그저 요 모습으로 요한 생활 거를 그 뭐, 천

년만년 살 거라고 그러느냐? 그 한 생, 예쁜 거 미운 거 좀 놓고, 그저 어차피 만났으니 인연이다 하고 그냥 살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귀찮아요? 생각해 보세요. 다 이렇게 털고 살 거를 오히려 하나를 더 붙여 가지고는 고생을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끝까지 그냥. 자식까지도 그렇게 만들어, 이게. 그게 물이 들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이미지를 그렇게 남겨 놓고 간다면 요다음엔 뭐가 또 좋겠습니까? 또 자기가 그 지경을 당해야 할 테니 그것 참 문제가 크죠. 그게 일심이 천심이 라고 안 그랬습니까? 내가 예전에 그 얘기 했죠.

마부가 당나귀에게 얼마나 심하게 굴었던지 맞은 당나귀는 남편이 되고 때린 마부는 아내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냥 술 한 잔 먹었다 하면 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부처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근본이 아니겠는가!

부가 당나귀 때리듯, "야!" 하곤 들어와서 아무거나 집어서 팽개치고, 치고 박고 이러니 멍들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야! 그렇게 자기 한 대로 받는데, 이거는 지금 같으면 뭐 이혼했죠. 그러나 예전에는 이혼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스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살아야 합니까?" 하고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우리가 "그건 인과응보니라. 네가 전자에 마부로서 얼마나 그 사람을 때렸느냐? 네 남편이 바로 그 당나귀였고, 그 당나귀를 때린 네가 바로 그 아내가 됐느니라.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을 내 어찌 하겠느냐마는 이제 마음을 고쳤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뒷자리를 꼭 밟아서 꼭 매가지고선, 술에 취해 들어왔을 때 손쉽게 집어가지고 때릴 수 있게끔 해 보라. 그러다면 뒷자리 위는 즐기며 몽둥이가 되니까 그 마부가 당나귀를 때린 그 수효를 곧 채울 수 있게 되느니라." 그래서 정말 뒷자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놔두었다면 한 이틀인가 사흘, 아, 그걸 그냥 집어서 치고 치

고 그러더니만 어느 날은 술을 먹고 들어오더니 딱 하는 소리가,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술을 먹었지?" 하면서 "그런데 자네를 내가 왜 그렇게 때렸지?" 이상하게, 그 약한 몸을 내가 왜 그렇게 때렸지?" 하면서 그렇게 울더랍니다. 인생을 한탄하고 그러더니만 그날부터 씩 없어졌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억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그래요. "야! 당신 남편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속의 업식들이 자꾸 총동질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당신 남편은 참 착해." 허허허... 그러죠. 그러니까 그 업식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꾸 관(觀)하고, 남편도 관계끔 자꾸 위관해라. 관하는 데 돈이 드니 못하느냐, 재산이 없어져서 못하느냐?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지 누굴 믿느냐 이거야, 지금. 이 세상에 어디를 믿을 데가 있어? 그런데도 왜 안 믿느냐? 그러니까 관 하라고 해라. 그러면 그게 다 없어지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새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돌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할 말은 많은데요. 만날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 들려 드리다 보면 반갑고 즐겁고 이런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출거나 텃거나 그걸 가리지 않고, 아무렇게나 생긴 조막쟁이만한 이 모습을 싫다고 안 하고, 알보지도 않고, 그다지 높이 보지도 않고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 여러분의 마음이 좋을 뿐이에요. 내가 누구한테만 지 멋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요, 내 모습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뛰어넘어 보세요. 그러면 내 뜻을 다 아실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안달복달을 하고 그러는지 틀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림이다. 그 사람 지금은 외국에 가서 잘 살고 있지만요. "스님, 스님!" "왜 그래?" "글쎄 꿈에요, 천아만아한 데를 그냥 밟을 때 놓으래요. 그냥 뛰래요." 그런데 그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길은 두 갈래로 있는데 해골이 그냥 뭐 막 널려 있더라. 그런데 그 천아만아한 데를 그냥 뛰어 내리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네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걸랑은 뛰지 말고 네가 산다고 생각을 하걸랑은 뛰어라." 했더니, "뛰어라! 뛰어라!" 하더라. 내가요. 그래서 에이, 눈을 꼭 감고 그냥 다리를 툭 떼어 놓으니까, 발이 끈적끈적한 무엇에 묻은 것처럼 착 붙들립니다. 그래서 그냥 착 붙어서 내려가니까 그냥 내려가지더라는 거예요. 내려가서 보니까 두 갈래로 길이 있는데 한 길은 아주 험한데 지름길이라고 하고, 한 길은 아주 가기 좋더라. 그래서 지름길이라고 하면 데로 들어섰대요.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아이구, 그냥 시간이 급하니 그냥 간다고 가다가 해골바가지가 쪽들늘어서 있는 곳에 당도를 했는데, "죽든지 살든지 에이, 그까짓 놀이 거, 이 세상에서 살면 뭘 하고 죽으면 뭘 하느냐." 하고 그냥 하염없이 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왕이 사는 큰 대궐 같은 데가 딱

나오는데, 보니까 "아무개 왔느냐?" 그러래요. 그래서 보니까, 머리카락 한 가락을 요렇게 들고는 "이게 네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러면서 "요 머리카락 하나에 네 인생 전체가 달려 있느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머리카락을 쥐고선 "아무개지?" 하고선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 이름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죽거나 살거나 그저 길을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말하는 데 아, 그냥 별안간에 내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 아래가 큰 바다로 그냥 화했는데, 그 바다가 운데서 왕관을 쓰고, 법륜 마크가 그냥 번쩍번쩍 번쩍 금으로 됐는데 거기서 나와서는 "너무 상심 말고 뻗뻗하고 여여하게 살라. 너는 부처님께서 인정을 했느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런 꿈을 꾸었다고 그러기에 그랬죠. "그런 꿈 왔다고

우리가 지금 중세에서
바로 이런 공부를 해서
공부에 종지부를
찍는다면
그냥 세세생생입니다!

자만하지 마라. 하하하... 올라가다 떨어져." 그랬더니 그저 항상 든든하게만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는 데에 어떤 것도 그다지 지장이 없고, 자기에게 어떤 게 닦쳐도 공부로 생각을 하니 그냥 금방 돌아가고 돌아가고, 한 참나에 돌아가고 돌아가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참 잘 살고, 4개국 말을 하면서, 또 외국으로 간다고 합디다마는 하여튼, 요점은 자기를 자기가 우습게보지 말라는 얘기도. 자기가 자기를 우습게 보지도 말고, 또 높이지도 말고, 아주 그냥 중심에 심봉을 꿸고, 아까 오분향 얘기했듯이 그렇게 다지고 나간다면 그건 뭐 100% 성공이다라는 얘기도.

아, 재미있는 얘기도 못해 드리고, 만날 만나면 이런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나? 요다음에 또 다시 만날 텐데... (대중 스님들을 보시며) 그리고 참, 뭘 얘기를 하라고 그랬지? (대중 스님들 중 '연예인 불자 법당'이라고 대답함) 응! 불교방송국에, 참, 그 여러분한테 거워서 하기가

너무나... 여러분 괴로움이 내 괴로움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조금조금 용돈 쓰라고 주기도 하고 이러한 걸 모아서 갖다가 줘요. 저는 요만한 거 하나도, 가슴 아프게 벌어서 가져오는 거 조금도 허탈히 쓰는 법 없습니다.

그했는데 또 부산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번에도 도와 달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지원 스님네들이 알아서 단돈 10만 원씩이라도 모아서 하기로 했죠. 또 지금 동국대학교에서는 병원도 그렇고 탐지도 그렇고 운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내가 법회를 해서 도와드릴 처지도 못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냥 우리 스님네들이 주머니를 다 털어서라도 모아서 하기로 하고, 난 얘기를 다 해야 재밌을 것 같아서요.

그했는데 또 정신대 노인분들의 집을 짓는데 도와 달라고 자꾸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텔런트 되시는 분들이 연예인 불자 법당을 짓는다고 하면서 한마음선원이 어딘데, 한마음선원이 이런 거를 안 하면 어떡하느냐고 이 한마음선원이 아주 큰 부자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또 "이 집을 못 짓는 거 보니까, 아주 졸파 땅 매가는구나." 하하하... (대중 웃음) 이러기도 하거든요. 어쨌거나 우리는 누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마음이든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웃음이 가지만, 그저 우리가 할 거는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러는 거죠.

안양회관에서 1월 셋째 주에 법회 할 때... (사무장님이 '소년소녀 가장돕기'라고 말을 함) 아니요, 그건 못하겠. 지금 앞에 딱한 게 이렇게 많은데 어떡합니까? (대중 웃음) 저 연예인 불자법당 짓는 데 하고요, 또 정신대 분들 짓는 거 하고요, 두 가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아,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긴만 하더라도 그냥 딱 내주고 말아 버리겠지만 그래도, 힘 닿는 대로는 해야죠. 어떡합니까?

그러니 이리 끼우고 저리 끼우고, 이리 끼우고 저리 끼우고 참, 그거 심부름꾼 노릇 하기도 참 힘든데요, 힘든다고 생각 안 해요. 그것도 그렇고, 어저께도 보니까 여러분이 추울 때도 더울 때도 그냥 저 바깥에 서서 들고 그러는 걸 보니까요, "참, 저 양반들이 부처님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랬죠. "저렇게, 저런 부처님들이 세상에 어디 계시냐?" 이라고요. 그러면 너무나 흐뭇해서요, 괴롭고 뭐, 분잡하고 그런 것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환장하시며) 나 하고 싶은 말 다 했는데요. 하하하...

*위 법문은 1995년 12월 3일 국내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佛紀 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공) 대한불교 범종단연합회

귀의 삼보하옵고, 생활불교계 각 종단 고승 대덕 큰스님, 그리고 2천 5백만 불자 사부대중께 아뢰옵니다. 존경받는 수행자로 거듭나기 위하여 각 종단 중정, 중정대행 단체가 화합하여 '공익법인 대한불교 범종단연합회'가 창립되었음을 제방에 선포합니다.

생활불교계의 뜻을 같이 하고자 하시는 종단 대표자, 대덕 큰스님 동참을 바랍니다.

◆공익법인 : 등록번호 36121-00226 / 비영리단체 : 417-82-63460

행정연락처 : 010-3807-8428

공익법인 대한불교 범종단연합회 대표자 합장

(사)대한불교범화종 북한산 무량사

전통사찰 경기등록 제 1호

전통사찰 북한산 무량사 주지 무량

신도회장 김영애 부회장 송경자·서상임

총무 이영숙 재무 송순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464-1호 TEL 02)385-7777,351-3789

